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과정 특별세미나

건국대학교 농축산대학원 1995.10.24-10.25



◀최고경영자 과정 발전을 위해 힘쓸 임원에게 위촉패가 수여됐다.

◀21세기의 제빵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원우회 회원은 진지한 자세로 세미나에 임했다.

현장리포트

앞선 점포 경영의 꿈이 영근다

건대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 과정 학술 세미나



1·2기 공동개최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학술 세미나

앞선 점포 경영을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배운다.

건국대학교 농축산대학원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 과정 수강생의 모임인 원우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대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 과정은 대학에서 개설한 제과제빵 과정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원우회의 학술 세미나 개최는 이번이 세번째.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평에서 독일 하노버대학 월터 프로인터 교수를 초청해 독일의 제빵 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고 지난 8월에는 독일 하노버 대학 연수를 마쳐 원우회의 학술 세미나는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특히 원우회의 이번 학술 세미나는 1·2기 수강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미나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이번 세미나는 뻑뻑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건대에 집결해 세미나 장소로 출발한 원우회 일동은 5시에 도착하자마자 행사 및 세미나에 돌입했다.

원우회 1·2기 회장단원 및 임원, 회원 소개로 공식적인 첫만남을 가진 후 경영자 과정의 발전을 위한 1기 김영모 회장과 임원 위촉패 증정에 이어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김혁일 교수를 초청해 '21세기에 있어서의 제빵 산업'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 및 시장 현황, 제품 경향, 기술·인력상 문제점을 자료와 시청각 자재를 통해 살펴본 세미나에서 원우회 회원들은 예정 시간을 초과한 2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를 유지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2기 임현양 회장의 인사와 경영자 과정의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로 식사와 연회 순서로 돌입한 원우회는 노래 자랑과 디스코 경연으로 1·2기 회원의 친목을 굳게 다지기 위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된 노래 자랑과 디스코 경연에서는 서로 뒤지지 않기 위해 여러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노래 자랑과 디스코 공연, 문경새재 등반 통해 내실과 발전 기약

다음날 원우회 일정은 문경 새재 등반으로 이어졌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6Km 거리를 등반하며 서로의 근황과 사업에 대해 실재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곳곳에 위치한 유적지에서는 발길을 멈추고 유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새재가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 꼭 이곳을 거쳐야 했던 길이었다던 만큼 앞선 점포 경영을 위해 제과제빵 최고 경영자 과정에 모여든 원우회 회원들이 이 날 다시 그 길을 밟고 있다는 옛날과 오늘의 시간을 뛰어넘는 연관성을 생각할 때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했다.

1박 2일의 학술 세미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원우회 회원들은 이번 세미나가 1·2기 회원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내용면으로도 많은 것을 얻은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최고 경영자 과정의 내실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 올 12월 또 한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 모두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선비들이 서울로 향하던 문경 새재를 원우회 회원이 다시 밟아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1·2기로 나누어 열린 노래 자랑과 디스코 경연대회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